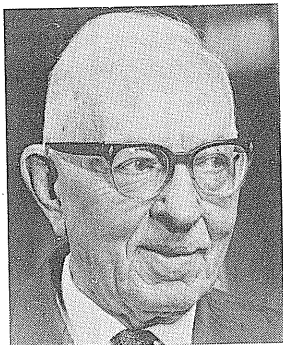


성도의 벗 8
1970





“나의 교회는 이렇게 불러지리라”

대관장 죠셉 필딩 스미스

● 금년 4월 6일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조직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회복 14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교회의 회원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를 묻습니다. 말일성도는 그 일컬어지는 이름이 뜻하는 바에 충실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복음의 원리와 완전히 부합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마태 4:4, 신명 8:3)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칭호를 가지므로서 거만해 지거나 우쭐해 하거나 스스로 의로운 체 해서는 안됩니다. 성도라는 칭호는 교회의 회원이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기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 회원이 교회 이름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려 하셨던 것이며 뒤이어 이런 권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교성 115:4-5)

이제 이 칭호를 받아 들이면서 말일성도는 옛날에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규례를 따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때에는 교회 회원을 성도라 하였었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사행 9:32), 바울의 기록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로마 1:7)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회원들이 옛

날의 규례를 따른다는 사실이 분명하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을 말일의 계명으로 명하사 “성도”라 일컫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백 사십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나는 여러해를 두고 교회 역사를 정리해 왔습니다. 이 교회의 겹쳐있던 첫출발의 역사를 다시 읽으면 마음이 절로 숙연해 집니다.

교회는 1830년 4월 6일 미국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지에 있는 피터 휘트머의 집에서 여섯 사람으로 조직되어 출발했습니다. 이들 여섯은, 요셉 스미스 2세,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 피터 휘트머 2세,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데이비드 휘트머였으며 이미 침례를 받은 몸이었으나 교회를 조직하던 날에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진행하였고, 이미 이전에 받은 계명에 따라 형제들에게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됨을 용납하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계속하며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 저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일인가를 역시 계명의 뜻에 따라 물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제의에 대하여 저들은 만장일치로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로 성임했으며, 그런 후에 그가 나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의 직에 성임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떡을 취하여 축복한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었고, 포도즙을 축복하여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참석한 회원을 차례로 안수하여 성령의 은사를 전하였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였으므로 성도들 중에는 예언을 말하는 자도 있었고, 우리들은 모두 주를 찬양하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교회 정사 제1권 77—78페이지)

그날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날의 행사를 기록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계시를 통하여 요셉 스미스는 교회의 장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성 21)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830년 6월 9일에 페이지에서 교회의 첫번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참석한 역원은 요셉 스미스 2세,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피터 휘트머, 지바 피터슨으로서 당시 교회의 장로로 성임받고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대

회에서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하이람 스미스, 말틴 해리스가 제사에 성임되었고 하이람 페이지와 크리스찬 휘트머는 교사에 성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회를 끝마칠 때는 교회에 장로가 일곱명—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포함해서—제사가 세명, 교사가 두명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총 회원수는 27명이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1830년 9월 26일에 열리는 대회 때까지 교회 기록과 대회 기록을 담당하기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대회 때의 회원 총 수는 62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가 세번째 대회인 1831년 1월 2일의 대회 때까지 기록을 맡기로 임명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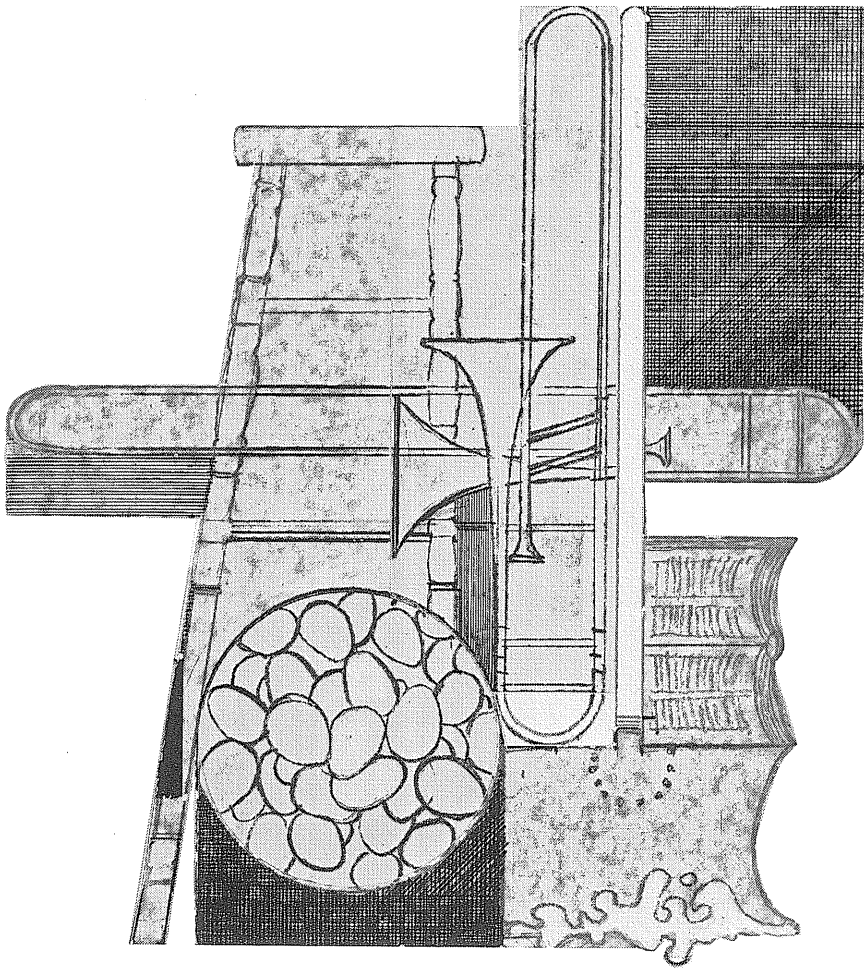
그 후에 교회는 오하이오주 커트랜드로 옮겼으며, 1831년 6월 그곳에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때에 비로소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서는 처음으로 대제사가 성임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전에 감독단에 부름을 받았던 에드워드 패트리지가 존 코릴과 아이삭 몰리를 보좌로 붙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교회내의 최초의 감독단인 것입니다.

1832년 1월 25일 오하이오주 암허스트에서 열린 대회에서 예언자는 대제사 신권의 회장으로 지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초로 대관장단은 요셉 스미스를 대관장으로, 시드니 리그돈과 프래드릭 지. 윌리엄스를 보좌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1833년 12월 18일, 요셉 스미스 1세는 교회의 축복사로 부름을 받아 성임되었습니다.

1835년 2월 시온의 캠프가 끝난 후 커트랜드에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비롯한 이래 최초로 사도와 칠십인이 성임되었으며, 사도는 1895년 2월 14일 몰몬경의 세 견증인에 의하여 계시에 따라 선택되고 성임되었습니다. 그후 약 2주 후에 첫번째 70인이 성임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로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나는 이 교회가 기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귀한 사명을 갖고 있으며, 아무도 이 사업을 지지할 능력을 가진 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성취할 것입니다. 바라노니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회복해 주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멧세지

드웨인 제이, 사익스 박사

● 베크 형제가 처음 나를 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년전 2월 어느 작은 마을에서였다.

그러니까 내가 14살 때 그의 지부교사(현재로는 가정복음 교육이라고 하지만) 후임 동반자로 임명된 것이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위크스씨의 벽돌 집을 방문했을 때 나는 참으로 놀랐다. 여러해를 두고 내가 그집 앞을 지나 학교를 다니면서도 위크스씨나 그의 부인이 물론이라는 사실을 나는 몰랐던 것이다. 나는 한번도 그들을 교회에서 본 일이 없었다. 우리는 넓은 입구를 지나 좁은 시멘트 계단을 밟고 올라서서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십니까? 위크스 부인, 저

회는 가정복음 교육 교사인데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집 식당으로 안내되어 그집에서 내어 놓는 의자에 앉았다. 그 뒤로도 우리는 늘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식당에 앉았고, 위크스씨는 높은 목재 걸상에 그리고 그의 부인은 신선한 계란 그릇을 먼저 마루에 올려놓은 다음 벤치에 앉곤 했다. 그집엔 늘 계란이 있었다.

첫번 방문을 갔던 저녁에 베크 형제는 계란 값을 물었고, 우리가 떠나올 때까지 약 15분 동안 줄곧 계란 이야기와 칠면조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는 위크스씨와 늘 계란에 대해서 토론했다. 때로는 계란 값에 대하여

또 어떤 때는 갈색 계란이 부화율이 높다는 이야기로 토론을 했고 병아리 둥지를 고치는 일, 닭이 털을 가는 시기 등도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들의 방문을 위크스씨가 반가워 하게 되었다. 베크 형제는 한번도 기도를 하자고 하지도 않았고, 그 집에 도착하여 우리가 복음 교육 교사라는 말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번은 베크 형제에게 내가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늘 그곳에서 계란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군요. 형제님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면서 계란에 관해서 참 많이 알고 계신데, 계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 나는 뭐 별로 계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위크스 형제는 계란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셨거든.” 베크 형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첫 교육 방문에서 두번째로 방문한 곳은 크라크 형제 댁이었다. 크라크 형제는 고등 평의회 의원이었다. 자리에 채 앉기가 무섭게 베크 형제는 불과 2분 동안에 공과를 요약해서 설명하였고, 그 후에는 두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경전의 성구를 인용하였다. 마치 이종창을 하듯 두분은 산상 수훈에서 교리와 성약으로, 다시 교회 역사로, 계시의 책으로, 그리고 지난 주일 신권회 공과로 이야기가 옮겨지더니 다시 산상 수훈의 말씀으로 화제를 옮겼다. 나는 두 손을 한데 모은 채 테니스 경기를 구경하듯 두분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두분이 서로 경전을 인용하고 토론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약 반시간 후에 베크 형제는 다음 달 복음교육 공과에 관한 노트를 남겨 놓으시고 폐회 기도를 한 다음 우리는 그 집을 떠났다. 크라크 형제 댁에서의 모임은 매달 그랬다.

그 첫번째 방문 길에 우리가 또 들린 곳은 데이비스 여사가 기거하는 작은 집이었다. 근처에는 온통 숲이 우거졌고, 집은 재목의 칠이 모두 벗겨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호기심에 가득찬 채로 베크 형제의 뒤를 따랐

다. 베크 형제는 아무말도 없이 자동차 뒷 트렁크로 가서 눈치는 삼을 꺼내 들었다. 그는 차도에서부터 그 집 앞에 까지 쌓인 눈을 치웠다.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했다. 눈이 쌓인 날자가 펍 오랜 것같은 데도 눈위로 난 발자국은 몇개되지 않았다. 나는 옛날식 커튼 뒤로 움직이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떤 그림자가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베크 형제는 문을 크게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툇툇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이 열린 틈으로 철사로 엮어맨 안경을 걸친 백발의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테이비스 자매님. 저의 새 동반자 사익스 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라마의 아들입니다.” 베크 형제는 큰 소리로 즐겁게 소리를 질렀다.

노인은 머리를 조금 움직여 알았다는 뜻을 표했다. 나는 문 사이로 손을 뻗쳐 작은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베크 형제는 어느 사이에 벌써 돌아서서 차도 쪽으로 걸어 가면서 삽에 묻은 눈을 땅에 두드려 털어내고 있었다. “다음 달에 또 뵙죠, 데이비

스 자매님. 눈이 이렇게 길에 쌓여서야 되겠어요? 아무 한테나 전화를 거십시오. 와서 당장 치워 드릴테니까요.”

달리는 차에서 나는 베크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것이 그댈의 가정복음 교육 방문이었나요?”

“물론. 아마 이 방문이 교회와 데이비스 자매를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일걸. 아니, 그 자매님이 이 세상과 갖는 단 하나의 연결인지도 모르지. 내가 그 집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여러달 되는데 처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아직 한번도 안에는 들어가 보질 못했지만 그분의 주름살 투성이 얼굴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그분이 우리의 방문을 흐뭇해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네.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그 어두운 문을 통한 인사일망정 전해드리지 않는다면 대단히 실망하실 걸.”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다.

우리의 그 첫번째 방문길에 맨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젊은 존슨 가족이었다. 베크 형제는 주일이면 늘 존슨 형제를 만나면서도 직접 방문하여 어린 두 아이의 건강과 사업의 운영

등 여러 가지를 소상하게 묻고는 모두 즐겁게 그달의 멧세지를 놓고 토론하였던 것이다. 기도가 끝난 다음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이들이 기르는 새끼 명주쥐를 구경하였다.

존슨 형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트럼본을 불었다는 사실을 안 다음 한 번은, 역시 지방 밴드에서 트럼본을 연주한 경험이 있는 베크 형제는 그를 놀라게 하려고 그의 트럼본을 가져 갔다. 두 사람은 함께 뚜뚜 따따 나팔을 불며 그 좁 낡은 악기로 참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 시절, 자기가 전할 바 메시지를 가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를 아는 유능한 교사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대상의 성품과 상태에 민감하면서 베크 형제는 늘 특별한 방법으로 그가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한 우리는 우리의 성의를 다하여 일해 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내게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을 아끼는 이유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

모든 지부장은

집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한다

도로디 오. 리아

● 누이와 함께 나는 새로 우리 집에 태어난 남자 동생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기 때문에 동생이 집에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누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동생을 너무 잘해 주어 오히려 버릇 없는 아이로 만들기 쉽다고 하면서 “남자의 단점은, 우리들이 모두 결혼한 다음에 어머니의 부엌 시중을 거들지 못한다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크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집에서는 크게 도움을 드릴거다.”

우리는 그때 아버지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만, 동생이 12살이 되던 생일날 비로서 아빠가 하셨던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성찬식에 참석했고, 동생이 성찬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빵과 물을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눈 성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동생이 “아버지의 집에 일군”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아빠가 옛날에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일성도 소년(녀)이 12살이 되면 훌륭한 경사를 맞습니다. 12살이 되는 소년(녀)은 상향회에 참석하여 소년(녀)단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가장 경사스러운 일은, 본인이 잘 준비하고 있는 경우 집사에 성임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사로서는 주님

의 사업을 도와 성찬을 전달하고 금식 헌금을 모으며, 지부장의 심부름을 하고 필요한 일에 봉사하게 됩니다. 또한 신권의 높은 직분에 성임될 준비를 합니다.

작은 어린이들은 집사가 주님의 사업에 임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일을 돕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노년의 모임에 쓸 장작을 나를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길고 무거운 소나무 기둥을 나르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작은 소년 데일 포프가 달려왔습니다.

“그 통나무가 너무 무거울 텐데 내가 저들께.” 포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데일 포프가 이미 다른 집사들이 남을 돕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데일은 바로 집사가 되었고, 정원회의 서기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가 되므로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나 스스로가 간증을 얻기 때문입니다. 남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사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교사와 지도자, 그리고 우리 집사들은 함께 여러 가지를 토의합니다.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수가 그 시대에 살던 현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현인이 계시다면 그분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며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진리에 관하여 기도로 간구하였을 때 그는 나보다 별로 나이를 더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분이 성실하셨던 까닭에 우리는 오늘날 소년들이 와서 주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이 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데일의 친구인 넷 버슈넬은 역시 집사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신권을 가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빠가 나를 침례해 주시고 집사로 성임해 주셨을 때 나는 기뻐했습니다.

나는 내가 열두살이 되었을 때 지부장님과 가졌던 접견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지부장님은 신앙, 기도, 십일조, 남을 돕는 일 등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우리가 흑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은 개선됩니다. 남에게 봉사하므로서 우리는 개인의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스테이크에는 과일 농장이 있습니다. 지부장님이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 가서 과목 들레를 파기도 하고 과일을 따기도 합니다. 거기 나가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 사다리나 들통을 잡아주기도 하는데 여간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과일을 나눠 주기도 합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인 브레드 오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는 예배당 주위에 있는 이웃을 방문한 일이 있



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것과 교회 소년단임을 밝히고 나서, 심부름을 해 줄 수도 있고, 잔디를 깎아 줄 수도 있으며, 기타 필요한 일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했고, 지금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부의 정원회에 소속된 소년들은 펍 재미있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에는 언덕이 많았고, 그 언덕엔 지어진 집도 많았습니다. 한번은 성탄절이 되었는데 회원, 비회원의 집의 구별 없이 언덕 위의 집들이 온통 성탄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장식을 보러와서 상호 부조회에서 마련한 과자, 사탕, 선물 등을 사갔습니다. 수백대의 차가 물건을 사려고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의 집으로 몰려 왔습니다. 이들이 도착하면 대기하고 있던 집사들이 친절하게 주차장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안내원의 역할을 하여 길을 일러 주는 등 온갖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영원히 기억할만한 밤이었습니다.”고 어떤 집사는 말했습니다. 이들 집사는 자기들의 지부 회원 중에 누가 아파서 주일학교나 성찬식에 나올 수 없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집사들은 한달에 한번씩 특별한 봉사를 합니다. 제사 한 사람과 집사 한 사람이 그러한 회원의 집을 찾아가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해 주므로서 그가 다시 한번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줍니다.

지부장으로 일하시는 브렛의 아버지 칼론 오클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부장은 집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한다. 장차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이들 훌륭한 젊은이의 노력이 온 교회에 유익을 더할 것이다.” ○

요셉 필딩 스미스



요셉 필딩 스미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0대 대관장

부루스 알. 맥콩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주는 그의 섭리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던 지도자들은 모두 그들이 접했던 시대가 요구하는 특별한 재능과 품성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예언자의 중임을 맡고 부름을 받은 요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지난 옛 절차에 의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음성은 이 죄 많고 험난한 시련의 세상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벡케이 대관장님, —그분은 강력한 영적인 권세의 기둥으로, 힘찬 인간의 지도였습니다. 관리의 능력에 뛰어났던 예언자 벡케이 대관장님은 선교 사업을 확장하시고, 신전을 여러개 세우시며, 교회의 완전한 조직을 입체적인 조화로 이끄셨으며, 국내 국외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셨습니다.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님, —그분은 사랑의 사도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인간으로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화평과 조화의 의지를 불어 넣으셨으며, 장차 할 일을 위한 기초와 터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요셉 스미스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 들이라.”(교성:5)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두고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받게 되리라.”(교성5:10)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어떻습니까? 왜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교회의 대관장으로 택하셨을까요? 어찌서 93세의 고령이신, 이제는 조용히 물러앉아야 할 분에게 믿지도 못할 만큼 무거운 왕국의 짐을 짊어 지도록 하셨겠습니까? 왜 주님께서서는 저마다 주님과 특별한 약속을 나누는 커다란 사명을 가진 형제의 무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떠맡기셨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최후의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의 자녀를 위하여 창고에 준비해 두신 일에 관하여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식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하시는지 이해하는 몇몇 사람은 보다 분명하게 사리를 깨닫고 봅니다.

우리의 신임 대관장

우리의 새 대관장님은 교리의 교사요, 신학자요, 성경학자요, 진정한 의미를 말로 전하는 의의 설교자이십니다. 60여년 동안 그는 온세계의 성도를 대상으로 국내외를 총망라한 스테이크와 선교부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손끝으로 쓰여진 수만의 글자는 혹은 옛 선지자의 모습으로, 혹은 영의 뜻으로 충만하여 권고와 훈계와 설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완전으로의 길」을 필두로 그가 저술한 종교 서적은 여러권이 있으며 교회 안에서 그가 저술한 「교회 역사」보다 더 많이 읽혀진 역사책은 없습니다.

충실한 성도들에게는 그의 음성은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의 평화와 영광과 명예를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낙담하여 슬픔에 잠긴 성도에게는 그의 음성은 위로와 화평과 소망의 소리였으며, 저들로 하여금 주를 기억하여 주의 구속을 기뻐하고, 좌와 슬픔이 없는 보다 훌륭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져 나간, 잃어진 양떼에게 그의 음성은 다시 선한 목자에게로 돌아와 보호 받을 길을 찾으라는 소리였고, 의심의 황무지에서 푸른 초장으로 돌아와 배부르게 먹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교파,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이에게는 그의 음성은 주를 찾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며, 복음을 받아 들이고, 성도와 더불어 구원과 기쁨을 찾으라는 간청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한 무리에게 그는—마치 니파 이처럼—“회개하라. 너희의 죄로 너희가 멸망되겠음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권세로 가르치고 지혜로 다스리며 영감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의 신임 대관장님은 기본 경전과 복음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언자의 말씀에 마음을 쏟으며 이를 연구하였고, 그들 선지자와 예언자가 주님의 뜻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영의 안내를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특기할 점은 스미스 대관장님의 연구가 기본적인 경전을 바탕으로 한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비에 관한 교리에 대하여 그분은 크게 흥미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스미스 대관장님의 생애가 다만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일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학문과 복음의 지

식은 선행과 복음의 법에 따른 삶이 가져다 준 영광의 관입니다. 아무도 그가 거두어 먹인자와 옷 입힌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며, 그가 '뒷바라지해 준 선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간호해 준 병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그의 생활 태도는 우리 앞에 가로 놓인 길을 전진해 가려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삶의 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의 변천은 지도 체제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현재 교회는 발전과 팽창의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팽창의 기류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위에 이제 스미스 대관장님의 교리와 간증의 음성이 더하여 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가, 복음을 다시 정비하고, 세상과 우리를 갈라 놓는 그 진리를 다시 다듬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특정한 필요를 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임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는 영적인 훈련과 복음 연구의 시기로 우리는 돌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약하고 작은 것이 강한 것이 되며, 주가 친히 저들의 허리띠를 동여 매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를 위할 때 힘을 다하여 싸우게 하시겠다는 성약이 온전하게 이루어 지는 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회복된 복음의 관을 새로 손질하고, 계시로 전해진 말씀을 거듭 숙고하고 평가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이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까?

여하튼 대관장단을 새로 재정비하시는 주님의 의도의 일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전체적인 의도나 목적이 무엇이거나 간에 우리는 그중의 어떤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주님의 왕국이며 승리는 이 왕국 위에 임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신임회원의 수는 증가할 것이고, 성도들의 생활은 온전해 질 것입니다. 주는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두와 또 더 많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인도 아래 그분이 이스라엘을 관리하실 오늘과 내일을 두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 “여자가 모두 남편에게 친절하고 남편을 도우며 짜증을 부리지 않는다면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그의 남편 역시 더욱 행복해 질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두터운 상호간의 사랑과 우정과 존경과 협력의 견고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과 자기와의 결혼생활을 두고 제씨 에반스 스미스 자매가 하신 말씀이다. 솔트레이크 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이러한 사랑과 상호간의 배려의 모습을 바라보고 흐뭇한 정취에 빠지곤 한다. 매일 아침 스미스 대관장님은 자택을 떠나 혼잡

한 길을 건너 반 불룩쯤 떨어진 교회 본부 건물에 까지 걸어가신다. 스미스자매님은 자택 발니코에서 남편이 무사히 길을 건너 가신 다음 돌아서서 손을 흔들어 보이실 때까지 서 계시는 것이다.

“그분보다 더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지난 1월 23일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제10대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된 이후, 스미스 자매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 졌고 생활은 더욱더 분주해 지셨다. 그러나 스미스 자매는 본래의 그 소박한 생활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

로 단단히 마음을 가다듬으셨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대관장님은 안락하고 잘 정돈된 가정으로 돌아 오신다. 집은 온통 세계 여러곳으로 여행 하시면서 수집한 기념품과 가족의 초상화, 진열된 책과 책상, 스미스 자매의 수예 솜씨가 돋보이는 수예품 등으로 장식되어 누구든지 들어서면 곧 아늑한 가정을 느끼게 한다.

제씨 에반스와 조셉 필딩 스미스의 관계를 스미스 자매는 “평생 서로 알았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같은 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그분은 와드 방문 교사를 하셨습니다.”



예언자의 부인 : 제씨 에반스 스미스

엘리나 노웰스

이분들의 우정이 사랑으로 결실된 것은 아주 후의 일이었으며, 그동안 스미스 자매는 성공적인 음악인으로 명성을 날렸고, 대관장님은 교회의 사도로서 먼 곳을 늘 여행하셨던 것이다.

어린 제씨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그가 여섯살 때의 일이다. 종교반(현재 교회 세미나리 프로그램의 전신)에 나와 노래를 불러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이다. 그때의 곡은 “그 달콤한 옛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하네”였다.

“나는 그의 손이 내 머리 위에 놓여지기를 바라네.” 라는 대목에 이르러, 나는 감정이 격하여 울음을 터뜨

렸어요.” 라고 스미스 자매는 그때를 회상한다. 스미스 자매의 오빠 중에 어떤 오빠는 제씨가 또 노래를 하다 말고 울음을 터뜨릴까봐서 그의 노래를 그후에 들으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언젠가는 제씨의 노래를 아마 돈을 내고야 들을 수 있을 제다!” 제씨의 아버지는 제씨 오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번에는 제씨는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도 노래를 부를 때의 그의 감정은 어떤 확신을 수반한 뜨거운 것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의 오빠는 그후 정말 돈을 내고서야 그네의 노래를 들었다. 그때를 회상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보인다. 그네가 아메리칸 라이트 오페라단에 있을 때 오빠가 방문을 했었다. 그때 마침 그네는 여분의 관람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의 오빠는 동생이 출연하는 오페라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 했던 거다.)

에반스가는 모두 음악을 좋아했으며, 자녀가 모두 악기를 다루었고 또 노래를 했다. 남자 형제 다섯은(여섯 번째 아이는 유아였을 때 사망했다) 바이얼린, 크라리넷, 켈로, 홀트, 드럼을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는 솜씨였고 막내동생이 제씨는 피아노를 쳤다.

1918년 숙녀로 성장한 속기사 제씨는 그가 거의 반세기를 몸담아 온 태

버나클 합창단에 발을 딛은 것이다. 1923년 웨렌 지. 하딩 대통령의 장례식 순서에서 태버나클 합창단의 일원으로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중계인이 그네의 아름다운 노래를 높이 평가하여 아메리칸 라이트 오페라단과 교섭을 주선하였으며, 결국은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오페라단과 더불어 4년여를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어머니를 여행 동반자로 하여 여행하였으며 보헤미아의 소녀, 초코렛 병정, 미카도, 로빈훗 등 기타 여러 가지 오페라의 주 콘트랄토 가수로 활약하였다.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무대에 서는 생활을 사랑했으면서도 그네는 무대 생활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였다. 오페라단의 주임 성악 지도 교사가 매트포폴리탄 오페라로의 진출을 위한 준비를 심각하게 제의했을 때, 그네는 하나님께 기도로 앞길의 인도를 구하였고, 그의 축복사 축복을 참고하였다. 그의 축복사의 축복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그대의 온갖 재능을 그대는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바치며 교회의 일을 돕도록 하라.” 마침내 그네는 쏘트레이크 시로 돌아가 자신의 재능을 주님의 사업에 바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심은 사실 제씨에게 더 넓은 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는 태버나클 합창단에 복귀했으며, 쏘트레이크 시립 오페라단에 입단하여 헤아럴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순서 및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렀다. “하루는 내가 도대체 장례식에서 몇번이나 노래를 했는가를 기록에 남겨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다 못되어 하늘 기록에 다 정리되리라는 생각에 기록을 포기했어요.”라고 그네는 옛날 이야기를 한다.

1930년대에 들어서서 제씨 에반스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음악으로도 널리 알려졌지만, 똑똑한 사람으로도 그랬다. 시의 기록과에서 근무하던 그는, 주 기록과의 근무를 위한 경쟁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했다. 첫

번 경쟁에서 그는 재심 끝에 10표차로 패배했다. 다시 시 기록과로 돌아온 그네는 그 다음번 경쟁에 다시 입후보하였고 당선되었다.

그때가 쏘트레이크 지역 기록관으로 근무하던 조셉 필딩 스미스는 상치했을 때였고, 제씨 에반스의 새로운 삶의 지표가 천천히 결정된 때였다.

“교회 역사관의 서명을 받아야 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내가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시면서 내게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씨의 이야기이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환담을 나누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가 제씨를 찾아갔었오?” 그가 물었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걸 묻죠?”

“그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내 앞을 지나쳐 갈 때 왜 그런지 제씨에게 청혼을 하러 간다는 느낌이 내게 강하게 오더군요!”

그 후로 몇달이 지나서 조셉 필딩 스미스는 제씨 에반스에게 청혼을 했고 이로써 젊은 재원 제씨 아가씨는 더 큰 생의 짐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당시 자녀가 11명이었고, 남편이 학업으로 집을 떠난 큰 딸 둘에 그들의 아이들까지 모두 한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다.

스미스 대관장님의 가장 아끼는 음식은 집에서 구운 빵이다. 목요일 저녁에는 으레히 빵, 우유, 치즈로 저녁을 하신다.

“남편은 고기를 잡숫지 않습니다.” 스미스 자매의 말씀이다. “우리는 대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요. 가끔 그분이 유타 호텔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드시는 경우, 웨이터는 묻지 않고 과일 샐러드에 치즈나 과즙을 얹어 가져옵니다.”

스미스 자매는 대관장님과 함께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셨으며 자주 말씀과 노래를 부탁받았다. 스미스 대

관장께서 그의 노래에 합류하여 이중창을 부르시는 때도 허다하며 이분들의 이중창은 오스트랄리아, 남미, 구라파, 뉴욕, 토론토, 로스앤젤스 기타 교회의 선교부나 지방부, 지부, 와드가 있는 지역의 성도들을 열광시켰다.

지혜와 재능을 겸비한 그네의 설교는 수 많은 젊은이의 가슴을 울렸고, 불타는 간증으로 젊은이들을 격려하여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신전 결혼을 준비하게 하였다.

스미스 자매는 그의 어머니가 젊은이들에게 갖는 관심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잘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는 혹 내가 그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집에 데려오면 곧 내게 다시는 그런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어머니! 전 그 사람과 결혼할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머니는, ‘결혼하지는 않겠지 물론, 어쨌든 네가 다시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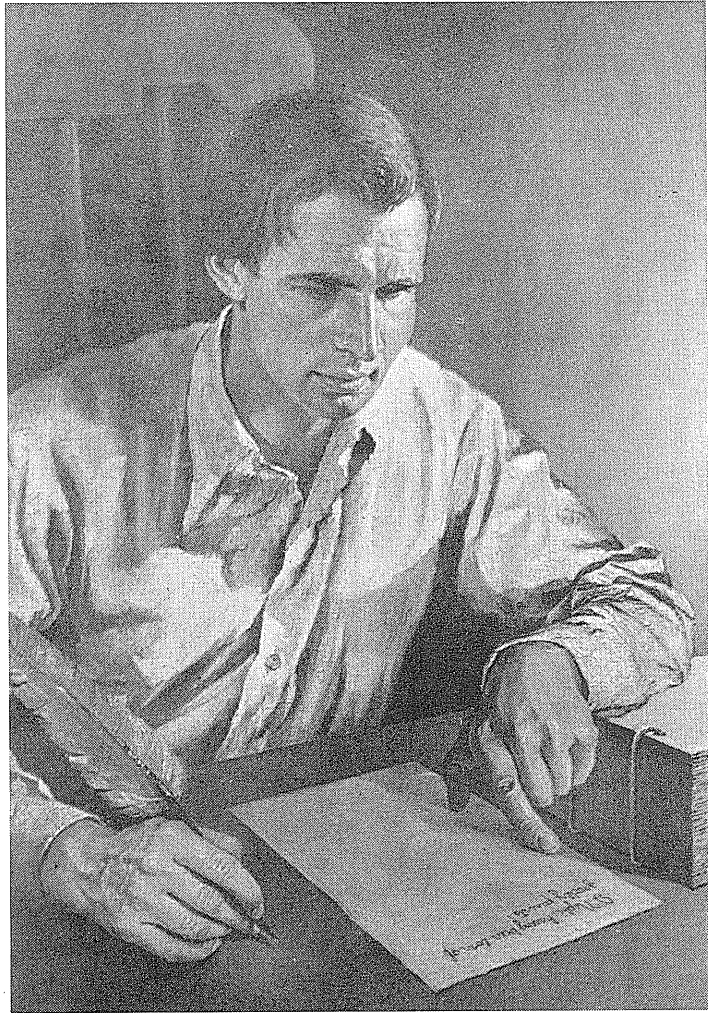
그러한 어머니의 권고와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의 의지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커다란 축복을 받았다. 그는 남편과 함께 그의 길동무요, 동반자로서 온 세상을 두루 여행하였다. 그는 자기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면서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고, 헌신적인 삶을 산 것이다. 그는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행복을 누렸다. 그리하여 찬사와 명예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행복이란, 사람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며, 그로서 스스로가 한 일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을 행하는 데서 온다.” 이것이 제씨 에반스 스미스의 생활 이념이다. 그네의 생애는 즐거주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따라 행한 일로 기쁨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 허가되는 성공을 느끼고 감사하게 하는 하나의 산 간증이 되고 있다. ○

요셉 스미스는 위대한 니파이인의 금판의 기록을
번역하여 물문경을 세상에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엘튼 엘. 해그



● 옛날 팔레스타인 땅의 도공들은 그 손재주가 놀라웠다. 그들은 가정 주부들이 만족해 하는 상품을 만들고자, 먼저 조심스럽게 진흙을 선택하고 곱게 쳐서 정리했다. 적당한 분량을 나누어 축으로 연결된 두 그릇에 담고 나서, 윗그릇에 담긴 것을 손으로 정리하는 동안 밑에 그릇에 담긴 흙은 발로 반죽을 한다. 그는 손에 든 흙덩이 반죽 그릇을 엄지 손을 중심으로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때로는 우아한 것을, 때로는 실용적인 그릇을 빚는다. 그가 이러한 창조의 작업을 하다가 가끔 빚던 흙덩이를 다시 둥글게 뭉쳐 움켜잡기도 한다. 일단 만족할만한 것이 되면 그것을 창밖에 내어 놓아 바람에 말리고, 마침내는 단단하게 굽는다.

산지자 예레미아도 주님께 이끌려 예루살렘에 있는 도공의 마을에 그 재주를 구경하러 간 일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주님은 흙 반죽으로 그릇 모양을 만드는 모습으로 예레미아에게 한가지 교훈을 전하시고자 하였다.“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예레18:6) 유다를 토기장이가 빚기를 거절한 흙에 비유하여 이야기한 일이 있다. 여러 마디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도공의 손에 있는 흙의 교훈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것으로 믿는다. 사실 바울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로마서 9:20—21)

물기와 반죽된 진흙

진흙이 적당하게 반죽되었을 때 도공의 재주가 최고로 발휘된다. 이미 굳은 흙은 다시 모양을 바꾸지 못하며, 잘못 손을 대면 부서지고 만다. 주님께서 아직 젊고, 미숙하고,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한 사람을 완숙하고 유식한 사람보다도 귀히 쓰시고 제자로 삼으셨던 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선지자 에녹, 사뮈엘, 예레미야는 아직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다. (모세서 6:31, 사뮈엘 3:1-20, 예레미야 1:6-7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스스로를 “산에서 굴러 떨어진 커다란 바윗 돌이며, 다듬어진 부분이란 굴러 떨어질 때 다른 것과 부딪힌 자리뿐”이라고 했다.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은 아직도 가르침을 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며, 거룩하신 창조자 토기장이의 손에 의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견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선지자는 각각 그 시대가 필요로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웃시아 왕의 법정에서의 답변을 위하여는 서정시인 이사야가, 바로 왕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구출해 내는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으로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어린 요셉 스미스 앞에 놓인 첫번 사명은 물몬의 금판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번역사업

번역에 관하여 대체로 사람들은 동의어 및 동사의 활용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만을 언급한다. 사실 번역이란 기계적으로 언어의 문법만을 다루는 이상의 작업이다. 번역에는 원래 언어가 갖고 있는 메시지의 정신을 파악해야 한다는 요소가 포함된다. 특히 고어체로 번역할 때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물몬경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

“보라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 우리들에게 전해져 쓰이는대로 다듬어져서 백성들간에 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지는 언어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주는 우리가 기록한 바를 아시며 또한 우리의 언어를 아는 백성이 없을 것을 아시어 이를 번역할 기구를 마련하셨느니라.”(물몬서 9:32, 34)

요셉은 일찌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록된 기록을 번역해야 할 임무도 맡았다. 니파이인들은 애굽어를 사용하였으나 자기들만이 아는 형태였다. 이 일을 이루려고 그들은 훈련된 언어학자 이외의 사람이 번역한 기록을 함께 정리하였다.

야렛 형제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도 읽지 못하는 언어로 기록하라.”(이더 3:22)는 명을 받았다. 그러한 계명은 다 목적이 있었다. 그 글자의 번역에 야렛 백성에 관한 연구 자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두개의 돌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들은 훈련된 언어 학자라도 번역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예언자는 이 돌이 우림과 돌임이었다고 전한다.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존 에이. 윌소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

“어쨌든 그것은 기계적인 번역은 아닙니다. 글자를 놓고 선지자는 그 글자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계시로 전달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판에서 전달받은 사상을 자기가 구사할 수 있는 최상의 영어로 정리하셨습니다.

시드니 비. 스펠리 박사는 이런 말씀을 더하였다.

“그 시간에 한하여 예언자는 니파이어에 대한 소양을 허가받았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금판에 기록된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해한 뜻을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영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후에는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면서도 한번도 자기가 언어의 대가라고 자랑한 일은 없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번역자를 택하실 때 주어진 은사는 고려하지 않으심을 안다. 예언자는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번역하였다”고 말씀하신다. 바로 이것이 요셉 스미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으며, 니파이어를 취급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확고 부동한 신앙이었다. 이러한 영적인 자세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것에 흔들릴 때 그는 아무것도 번역할 수 없었다. 그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기도로 간구하였을 때 그는 스펠리 박사가 말한 바 “언어의 소양”을 갖출 수 있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물몬경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하였고 번역에 관련된 거룩하신 뜻을 밝히셨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권세로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로 번역되었다. 여러분이 보시는 번역은 정확하며, 나는 여러분이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해 주기 바란다. ○



권능에 의한 침례

말콤 에스. 켈센

● 푸른 눈에 금발인 여덟살의 제인은 자기의 침례가 압박하여 긴장과 기쁨에 들뜬 채 보통 다른 여덟살 짜리들 처럼 지부장과의 접견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네가 내 사무실에 들어 온 다음, 나는 그네에게 침례의 성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였다. 나는 그네가 하나님 아버지와 침례로서 나누고자 하는 약속을 기록하였다. 그네는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고는 성약을 나눌 것에 동의하였고, 그네가 성약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서로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다가올 경사에 온통 긴장하던 그네는 별안간에 심각해지더니 이렇게 물었다. “지부장님, 누가 저에게 침례를 줍니까?” 제인의 아버지는 연초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다.

“짐 오빠가 있지 않니? 짐은 제사로서 아론 신권을 갖고 있단다.”(짐은 훌륭한 젊은이였으며 곧 선교사로 떠날 계획이었다.)

“너는 신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를 침례한 사람이 신권을 소유해야 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겠니?” 나는 이렇게 물었다.

제인은 도대체 신권이라는 어려운 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독생자의 방문을 받은 일과 그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권능을 갖지 못한 다른 교회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전하신 사실을 설명하였다. 또한 나는 부활하신 침례 요한이 1829년 5월 15일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이 경륜의 시대에 찾아 오시어 침

례와 기타 의식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설명하였다. (교성 13, 27 : 8 참조)

여덟살이 된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쉽게, 하늘 나라와 영적인 일에 관하여 눈을 뜨는 것 같았다. 제인은 당장에 내가 전한 이야기의 중요한 뜻을 알아 차렸다. 그네는 수백년 동안 이 지상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음을 이해하였다. 교리와 성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신 말씀들을 찾아 보았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교성 13)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 전인,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떠했을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제인은 자기의 침례에 작용하는 신권의 기능을 새롭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접견을 끝냈다.

침례에 필요한 신권

누가 자기를 침례할 것이냐는 제인의 질문은 그 침례자의 권능을 연결한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달랐다. 내가 접견한 거의 모든 소년, 소녀는 침례를 베푸는 권능에 대하여는 별로 묻지 않았었다. 부모나 교사는 훌륭하게 준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기가 쉽다. 7~8세의 침례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주일학교나 가정에서 자기들의 삶에, 신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에 아주 합당한 나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좋은 때가 되었으니 신권의 세가지 중요한 기본 원리를 가르쳐야겠다.

1. 신권이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며, 하나님의 사업을 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신권이 하늘과 땅을 통털어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다. 이 권세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용하시며, 이 권세를 가진 인간은 그가 이 세상에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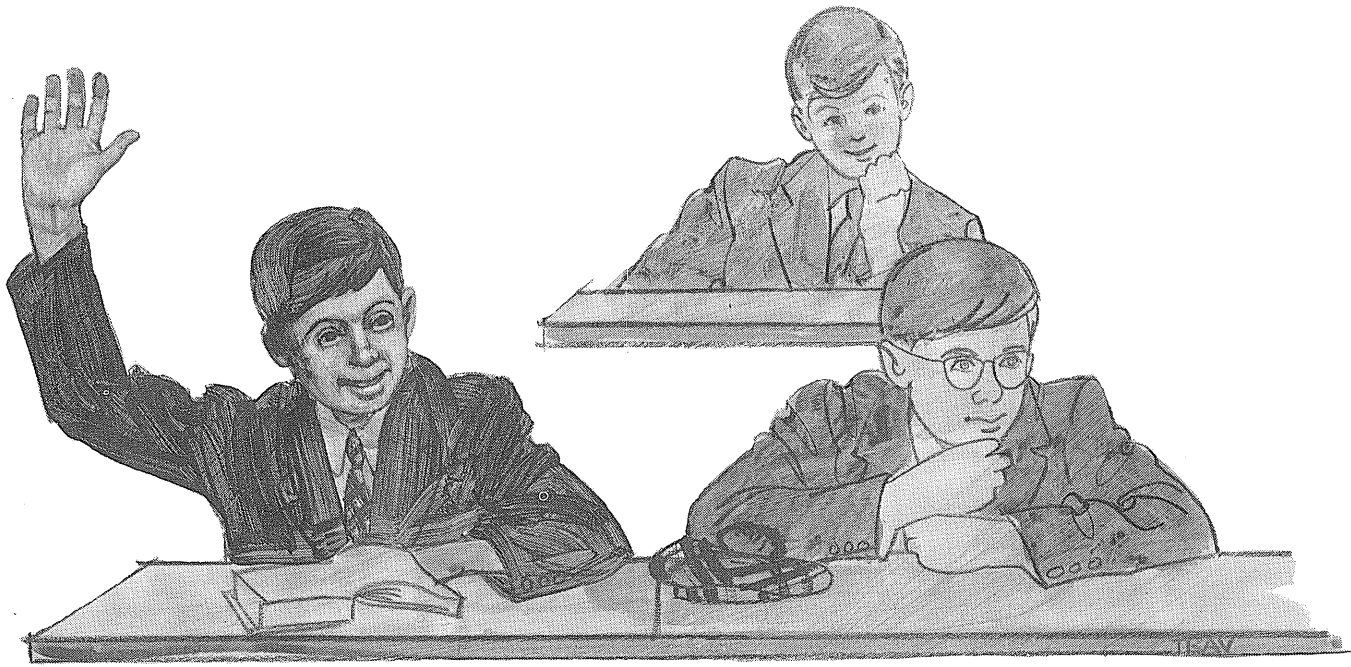
듯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한다. (교리와 성약 50 : 27 참조)

2. 신권의 범주 안에서도 발전이나 성장의 도는 다르다.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신권의 직분에 따라 임무와 책임이 다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 집사는 성찬을 전달하고, 금식헌금을 거두며, 성찬식에서 안내를 맡는다. 교사는 집사가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그 외에 성찬을 준비하고, 안내하며, 가정복음 교육에 참가한다. 가정복음교육은 신권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제사는 성찬을 축복하고, 선교사업에 참가하며, 침례를 베푼다. 또한 제사는 교사와 집사가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함은 대신권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임무에 충실한 소년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다. 우리가 신권의 임무에 충실하여 발전하는 상황은, 어린 아이가 차차로 앉는 법을 배우고, 기어다니고, 걷고, 뛰게 되며, 마침내는 달리기 경기에 참가하게 되는 과정과 흡사하다.

3. 수백년 동안 이 땅에는 신권이 없었으며, 따라서 신권의 회복은 커다란 축복이다. 내가 실제로 아이들을 접견하기 전에는 그들이 신권과 관련된 영적인 일의 중요한 뜻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저들은 신권이 존재하므로써 저들의 침례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배우며,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배운다.

내가 침례받을 연령에 임했을 때, 나는 신권을 소유한 나보다 나이가 위인 소년들을 마음으로 부러워했던 것을 이제도 기억한다. 이 작은 부러움이 장차 나도 신권의 영예를 얻겠다는 의지를 크게 움직여 주었다. 어린이에게 신권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그것이 그들 개개인의 침례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가르쳐 주므로써,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영합하는 삶의 목표를 영감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 10 : 14) ○



한 소년은 알았다

루실 씨, 리딩이 전하는 실화

● 수업은 지루했다. 아이들은 모두 한시라도 빨리 수업을 끝내기를 바랬고 낮에 시작한 경기를 어서어서 속개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그날 따라 해는 몹시도 길게 느껴졌다. 선선한 스코트랜드의 오후는 거의 끝나고 있었고, 해가 저서 학교 뜰에 짙은 안개가 덮일 때까지 놀 시간은 극히 짧았다.

선생님은 칠판에 적으시며 집에서 외어 올 기도문을 빨리 적는 사람은 일찍 가도 좋다고 약속하셨고, 특별히 선생님이 택하신 이 기도를 적고 외우면서 그 내용을 잘 음미하여 자기에게 무엇인가 뜻있는 것이 되게 하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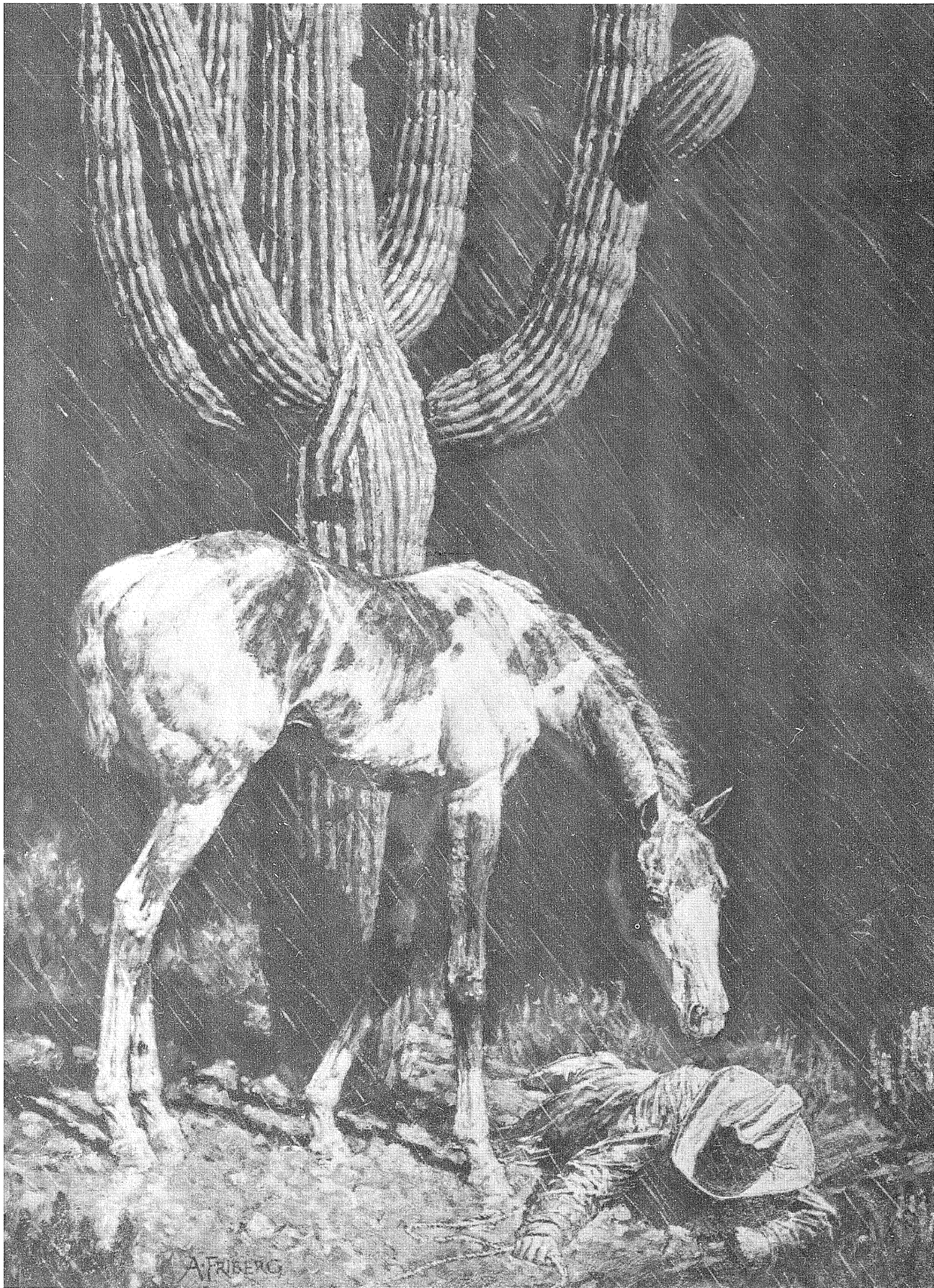
선생님이 칠판에 글쓰는 소리, 학생들이 연필을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릴뿐, 교실안은 조용하였다.

“선하신 주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기만 하고 그 값을 원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전쟁을 하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일을 하

되 쉬지 않게 하시고, 노력하되 오직 당신의 뜻을 이행한다는 사실만을 알게 하시고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선생님은 칠판에 마지막 마침표를 그려 넣으신 다음에 돌아서서 이렇게 물으셨다. “얘들아, 이 기도가 참 훌륭하지 않니?” 채 대답을 듣기도 전에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기도는 아마 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은 하되 보상은 바라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어떤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기도를 외우면서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연필과 노트를 걷어 치웠고 운동장에서 다시 운동 경기를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조용하게 제의를 했을 때 아이들은 잠시 숙연해지고 말았다. “저는 그 기도를 쓰신 분이 누구인지 벌써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이 쓰셨을 거예요.” ○



A. FRISBERG

생일은 가끔 빨리 온다

델로레스 런트 데이

● 밋치의 생일은 없어지고 만 것이다. 아픈 마음으로 그는 손을 들어 방에서 반사되는 불빛을 막으며 들창 밖을 내다 보았다. 마치 폭포가 쏟아지는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았다. 빗줄기가 창에 부딪쳐 퍼지고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은 목장의 집을 흔들었다.

밖에, 저 어느 목장가에 연약한 망아지가 이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니! 그리고 그것은 나의 과오가 아닌가! 밋치는 목이 메었다.

밋치네 집이 몇년전, 밋치가 열 살이 되던 해에 아리조나의 목장으로 이사를 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아빠는 제가 반드시 훌륭한 목장 관리인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밋치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밋치는 넓고 황량한 들판이 주는 두려움이나 가슴 뛰게 하는 공포에 대하여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입밖에 내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아빠는 모두를 이미 이해하고 계셨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밋치가 기억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는 정원에 물 주는 일, 오리에게 먹이를 주는 일, 집에 들어와서는 문을 잠그는 일 등을 그는 늘 잊었다. 집안 식구 모두가 그에게 일깨워 주었으나 그는 늘 잊었다. 그러다가 망아지가 태어났고, 사태는 달라졌다. 밋치는 새끼 망아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새끼 망아지는 밋치의 공포와 문젯거리를 모두 해소해 주었다. “네가 충분히 망아지를 돌볼 수 있다는 걸 입증하면 네 생일날 그 망아지를 네게 줄 테다.”

밋치는 “팬시”라는 이름을 망아지에게 주었다. 그는 굳굳한 목장의 조역으로 조금씩조금씩 일을 배웠다.

그는 자기가 습득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팬시는 이제 제멋이 된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는 아빠에게 까지 뽐내었었다.

그는 눈물을 썩으면서 창에서 물러섰다. 사람이 그런 실수를 범하다니! 오늘 아침 일찍 그는 아빠와 함께 마굿간에 갔었다. 검은 구름이 뒷산을 덮었고

마른 번개가 으르렁 거렸다.

“날씨가 좋지 않는데.” 말 안장의 끈을 단단히 잡아 매면서 아빠가 말씀하셨다.

“내가 마을을 다녀 올 때까지 비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팬시의 어머니가 멀리 사라지자 망아지는 큰 눈을 굴리면서 가없는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번개가 젖은 구름을 가르고 광풍은 마굿간에 몰아와 밋치의 머리칼을 날렸다. 바람은 마굿간 문을 앞뒤로 몰아 제쳤고, 팬시는 한쪽으로 비켜 섰다.

밋치가 손을 뻗어 팬시를 달래려 하였으나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팬시 놀래지 마라 제발!” 밋치는 애원을 했지만, 망아지는 막무가내였다. 아마 사과를 보면 조용해 지겠지. 밋치는 빠르게 문을 돌아 집으로 달렸다. 마굿간으로 돌아오던 밋치는 끈 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그는 입을 벌리고 서야 했다. 문은 열려졌고 팬시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아니 누가? 어떻게……?” 밋치의 죽은개 많은 얼굴은 창백해 졌다.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었던 것이다. 폭풍은 몰아치고, 어머니는 곁에 없고, 그리하여 망아지는 겁을 먹었다. 마을 쪽으로 갔을까? 아니면 들판에서 방황할까?

밋치가 수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미처 결정도 하기 전에 비가 쏟아졌고, 순식간에 그의 몸은 흠뻑 젖었다. 놀란채로 그는 집으로 뛰어 왔다.

비는 온종일 내렸다. 밋치는 어쩔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아빠가 돌아 오시기를 기다렸다. 저녁때가 되어 서야 아빠는 물에 젖고 흙 투성이가 되어 돌아 오셨다. “반쯤 왔는데 폭우가 쏟아지더라. 집에까지 올 수 있을지 난감했다.”

망아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아빠는 언짢은 얼굴로 밋치를 돌아 보시며 “네가 팬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잘 안다. 나도 팬시를 절대로 잃고 싶지는 않지만 이 폭우 속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

지금 온 가족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밋치는 어둠이 덮힌 들판을 노려보고 서있다. 나를 속일 수는 없어. 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정신이 바로든 사람이면 이런 날씨에 수색이라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망아지가 지금 들 어느 곳에 있다. 그리고 무서운 위험 앞에 밋치는 두 팔로 가슴을 안았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 비웃의 단추를 잠그고 손에 회중전등을 들고 밋치는 앞문을 열었다.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가자고 그는 자신에게 타일렸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힘차게 앞으로 나갔다.

몰아치는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헤쳤고, 빗발은 따갑게 눈을 때렸다. 회중전등은 뿌연 은색으로 한치를 비추지 못했다. 마굿간에 망아지가 돌아와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밋치는 휘파람을 불며 팬시를 부르며 차차 집에서 멀어졌다. 차차 발이 무감각해 졌다. 마침내 기진해움을 느꼈다.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얼마나 오래 방황한 것인가? 불안간 진흙을 딛은 발이 미끄러졌다. 그는 급히 무릎을 꿇었다.

그가 일어서려고 하였을 때 왼쪽 발목에 심한 통증이 왔다. 아빨사! 드디어 나는 발을 빼었구나. 그는 속으로 울었다. 회중전등도 없었다. 그가 넘어질 때 떨어뜨렸던 것이다.

비는 사나운 기세로 쏟아졌고 밋치는 어둠에서의 짧은 시간을 영원처럼 생각하였다. 차차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는 길 옆으로 미끄러지고 있음을 알았다. 진흙에 묻혀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는 반쯤 기진한채로 생각하였다.

얼마 후에 그는 비가 좀 뜸해졌음을 알았다. 그는 똑바로 누워 있었던 것이다. 잠을 잤단 말인가? 끈적끈적한 것이 손에 닿았다. 그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때에 목에 콧김이 다가 왔다. 팬시? 그것은 팬시였다!

밋치는 손을 들어 팬시의 머리를 잡았다. “오 팬시, 오 팬시……” 밋치는 다시 목이 메었고, 그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젖었다.

망아지는 벌벌 떨고 있었고, 밋치는 그를 곧 편안한 자리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밋치는 팬시의 머리를 잡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고통스럽게 몇 발자국을 옮겨 딛고는 다시 그대로 너머졌다. 그렇게 걸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더 차게 불었고, 밋치는 오한과 열을 교대로 느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발목은 끊어지는 것 같았다. 아빠는 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계신가? 그는 생각하였다.

“내가 네게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나.” 그는 팬시에게 속삭였다. 그는 자기가 집에서 여러 마일 밖에 와 있다고 느꼈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그에게 덮쳤다. 밋치는 숨을 죽이고……그러다가 감사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아빠였다. 자기 몸이 들려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헛간에 와 있었다.

“아마 너는 뱀뱀 뱀을 들었던가 보다. 헛간에 가려서 집을 못 보았던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등불을 못보았을리가 있겠니?” 아빠가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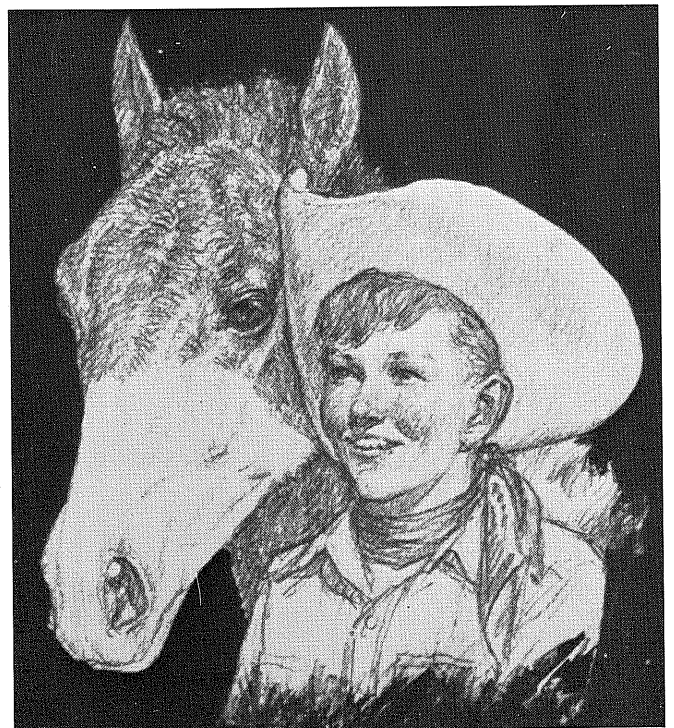
“어떻게……어떻게 팬시가 저를 찾았지요?” 밋치는 또 목이 메었다. 아빠는 밋치에게 담요를 덮어 주시고 망아지 쪽으로 돌아 서서 말씀하셨다.

“아마 팬시는 헛간과 마굿간 주변을 뱀뱀했던 것 같다. 넌 오늘 참 강한 일을 했어 밋치야!” 아빠는 팬시를 천으로 닦아 주셨다.

밋치의 음성은 거칠었다. “어쨌서요? 저는 팬시를 찾지도 못한 걸요. 팬시가 저를 찾은 거예요”

아빠는 다시 조용하게 말씀하셨다. “네가 발견한 것은 일에 필요한 용기였다. 그대로 두었던들 팬시는 오래 견디지 못했을 거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네 망아지는 이제 무사하니까.” 아빠는 밋치를 내려다 보셨다.

헛간을 돌아 나오면서 그들은 다시 팬시를 바라 보았다. 아빠는 밋치에게 미소를 보내셨다. “봐, 너는 벌써 네 생일 선물을 열었던 말야. 네 생일은 아직도 멀었는데.” ○



새로 성임된 집사의 생각

스티브 베렛

● 찰리 부로테릭은 아버지를 사랑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다.

아마 그 이유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도 모른다. 찰리의 아버지는 가족들이 성찬식에 참석할 때는 언제나 집사들이 앉는 바로 뒷자리에 모두 앉도록 했다. 찰리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다음 주일 집사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로 걱정하고 있음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

찰리는 초등학교 졸업으로 매우 흥분하고 있었다. 순찰반은 잘 마쳤지만, 또다시 그는 소년단에서 최고 계급인 범 소년단원이 될 목표를 세웠으며, 뿐만 아니라 대원들이 밀러 호수로 캠핑을 가는 일로 해서 더욱 흥분해 있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상향회에서나, 소년단 활동에서 이따금 소녀들과 함께 무용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러나 그보다 집사가 되는 것으로 해서 더 흥분하고 있었으나 약간은 두려웠다. 감독이 예배당 복도에서 자기를 불러 세우시고 그날 오후 세시에 감독실에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속으로 겁이 났던 것이다.

그는 감독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감독은 또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했을까? 이날따라 시간은 마치 달팽이가 가는 듯했다. 시간은 이제 겨우 1시 30분이었다. 무려 25분 동안이나 예배당 밖에서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는 어머니에게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네 모습이 어떻다느니,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느니 하고 야단스럽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여러 시간을 자기 거동에 대해서 알려고 눈치를 살피셨다. 그러나 그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시간은 압박했다. 그러나 누구든 어떤 일을 직접 당하면 혼자서 훌륭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그는 집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가? 찰리는 감독실 밖에서 기다리며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고 있었다. 스톤 자매는 일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침례 요한의 안수하는 권능은 학교에 있는 어느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일까? 그러면 다음에 싸움 대장 싸미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불러주면 때려 누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이라는 뜻이란 말인가?

그는 정말 합당했을까? 담배를 거절하는 일은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다. 그것이 우둔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몇가지 쉽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이다.

언행은 훌륭했는가? 그가 지금 변민하는 일은 육설이었다. 어느 착한 아이가 그것을 모두 기록해 두지는 않았을까? 이러다가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들켜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그는 그렇게 느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끔, 반에서 말일성도는 자기 밖에 없으며, 전교생 중에서 물론 7명뿐이므로 그들 속에서 견디어 내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변명을 일삼지 않았던가! 다른 아

이들은 자기가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못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이 적당한 변명이 될 수 있었을까?

찰리가 감독실로 들어 갔을 때 감독은 자기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맞아 주셨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은가! 처음 질문은 쉬웠다. “집사가 되고 싶은가?” 물론 그는 집사가 되고 싶었다.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가? 그다음 질문은 조금 어려웠지만 그는 정직하게 모두 대답했다. 최종으로 “육설을 하거나 못된 말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한 채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구두만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감독은 잠자코 기다리고만 계셨다.

역시 감독에게 말씀 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나중에 감독이 아버지와 자기를 한 자리에 불러 주신 자리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는 훨씬 더 마음 편했던 것이다. 두 분은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다. 모든 일이 잘 끝났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가! 감독은 이렇게 충고해 주셨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감독의 충고는 감명 깊었다. 찰리는 한 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으나, 이것도 그리 나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숙였던 고개를 들고 감독과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기가 저질은 모든 일을 숨김없이 고백했을 때 그의 기분은 참으로 좋았던 것이다. 드디어 감독은 그가 집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윽고 성찬식에서 감독은 찰리를 설교단 옆에 세우시고 와드의 모든 회원에게 찰리 부로테릭이 절전을 마치고 집사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지지를 물으셨다. 다소 두려운 감이 있었지만 찰리의 마음 속엔 따뜻한 느낌이 감돌았다.

그는 여러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 그는 그때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떠한 축복을 하셨을까? “항상 정직하라. 그럭하여 어려운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지이다.”고 축복하셨다.

성찬대 앞에 뒷짐을 하고 서있는 찰리의 손이 땀에 젖었다. 그는 성찬을 전달하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어머니께서 바로 그 점을 경고해 주셨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한번도 집사가 성찬을 전달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어쩌면 자기가 처음이 될런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자기가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구둑소리에 신경이 더 쓰이며 걱정이 되었다.

그는 딱딱한 자세로 성찬을 전달했다. 마지막 줄이 가장 어려운 고비였다. 그는 자기 형제들이 성국이 웃어 주는 데도 미소를 지어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에게서 성찬기를 받아 들고 그 걸을 떠나 돌아가면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눈웃음과 미소에서 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자기 팔을 꼭 쥐어 주시며 매결하다고 칭찬해 주신다고 느꼈던 것이다.

찰리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리고 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뻐했던 것이다. ○



과거의 길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의 길을
[준비하며]

현재의 길을
충실히 살리라

현재의

● 삼천 여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다음과 같이 아름답고 소박한 기도의 시를 읊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시편 27:11)

다윗의 시대 이래로 세상은 변한 것이 많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때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제의 오솔길이 오늘에는 고속도로가 되었어도, 두개의 길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생의 길을 안전하게 여행하려면 우리의 목적지를 가리키는 바른 길 표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길 표시는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세가지 중요한 길 표시를 암시한 다음 식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길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의 길을 준비하며,
현재의 길을 충실히 살리라.

우선 첫번째 길 표시를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길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가끔 진보적이며 야망이 많은 젊은이는 과거에서 교훈을 배운다는 가능성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교훈을 배우는데 실패한 사람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여 범하게 되며, 그 과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응보를 받게 됩니다. 오래 전,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시편 118:8,9.)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토마스 우슬리 재상은 충성을 다해 세 군

길을 충실히 살리라

토마스 리 몬슨 18세

주를 섬기는데 자기의 평생을 바치면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이 교훈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성급한 군주에게 버림을 받고 그의 영혼이 고통을 받을 때 이렇게 참회했습니다. “만일 왕을 섬기던 충성의 반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섬겼을진대 오늘날 나의 원수 앞에 별 거슴이로 내버림을 당하지 않았으련만. (세익스피어, 헨리 8세, 2막 2장)

가장 위대한 교훈은 구세주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흔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비를 간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또 고통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세주께서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과거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 이상으로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절의 축제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길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여행하며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백미러를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나를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길을 위해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또 어떻게 생각하든 지 하등 개의치 않고, 저는 다음과 같이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살기 좋은 때가 되리라고, 저는 내일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값진 특권의 시간이 되며, 변화와 도전과 무한한 약속이 있는 시기가 되리

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에만 우리의 사고를 국한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내일의 기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인간과 같이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이었으며, 지금의 하나님처럼 인간은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의 자서전과 가족기록, 46페이지.) “만일 인간이 지금의 하나님처럼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인간은 하나님의 과거의 존재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타당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셨던 것과 같이 생활함으로써 준비합시다. 우리를 기다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길을 위해 준비합시다.

우리는 과거의 생애에서 교훈을 배우며 미래의 생애를 위해서는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생을 잃어버려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길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파도가 삼킬듯이 무섭게 치는 위험한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이들은 여러 시간, 여러 해를 표류하다가 해안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용감한 형제들은 이 쪽에서 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현재의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어려움에 부딪쳐야 합니다. 문제 없는 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생의 정상적인 상태이며, 도전은 이런 문제로 말미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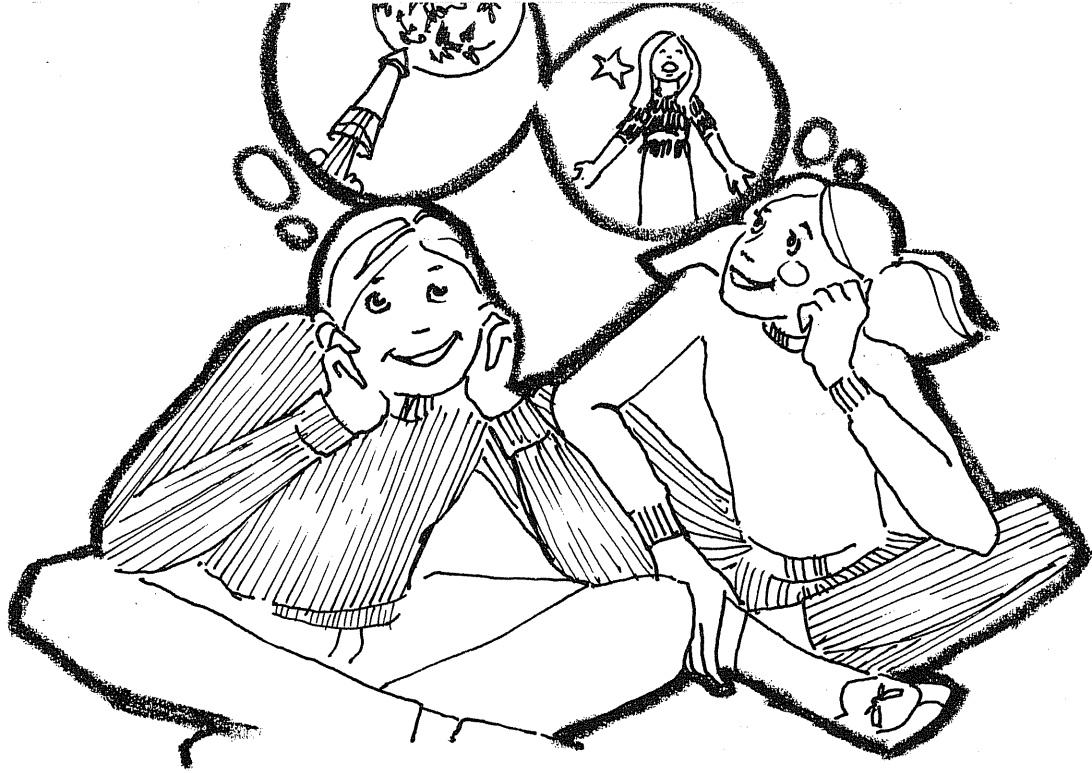
아 무기력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인간은 도전하며 투쟁해야만 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사납게 불어오면, 우리는 안전한 피란처를 찾아 피신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도전을 감당하여 이를 정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은 인간의 생품의 일부를 나타낼 뿐입니다. 사울은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몰락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과 주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명성을 가졌지만 인격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명성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며, 인격이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길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우리가 기운차게 달리고 있는 큰 길은 아득한 태고에서부터 시작했으며, 길은 비록 그것이 과거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미래를 위한 약속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 과거의 길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생이라는 대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은 곧고 좁은 길에서 점점 더 멀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좁은 길은 하늘의 목표에서 멀리 이탈케하는 교차로가 많으나 다만, 현명한 여행자는 안전 표시를 따라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길 표시를 암시한 다음 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길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의 길을 준비하면,
현재의 길을 충실히 살리라.

○



관리 감독단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 성공

● 우리를 절망의 심연과 행복의 정상으로 안내해 주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와 성공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생의 실패를 피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을 모두 바치며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 생각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표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의 커다란 비극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우리가 원하는 일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갖고 노력하며, 일하기를 꺼려하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유리되어가고 무책임해지며, 무위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밀리는 갈대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들대로 더욱 성공적인 생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잠시 발길을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다음의 격언은 사실이 더

욱 중요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을 추구하면 인간은 나약하게 된다.”

“생이 편안하기를 원하면 생을 어렵게 만들어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시키고 그 상태를 조절하지 않은 운동 선수는 결코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패배와 굴욕과 동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의 목표를 준비하는데 바치는 수고와 노력은 성공과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생을 훌륭하게 사는 데는 편안한 길이 없습니다. 더우기 성장기에 있어서 제반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야 함에도 열성은 보이지 않고 태만으로 그들의 생을 장식하는 젊은이는, 세상의 훌륭한 분야, 이를테면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장에서도 반가이 용납하지 않는 무용한 사람들입니다. 생의 가장 나쁜 일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을 시도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희미한 일몰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이—명암이 선명히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성공도 패배도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상에 온 목적을 성취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

면 생의 패배자가 되느냐는 역경과 난관이 그들의 목에 매달린 연자 맷돌이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보의 길을 가르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난관을 극복하여 이를 우리 영혼에 도덕적인 성품을 불어 넣어 주게 하는 인격 형성의 경험이 되게 함으로써 비로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기초를 갖도록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고초와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는 몇 사람의 동료와 함께 여러 달 몽안 미조리주 티버티의 감옥에 갇혀있던 뒤 그와 성도들이 분열의 위기까지 도달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예언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도들과 그들의 지도자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간절한 호소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언제까지나 당신의 손이 가만히 계시며 영원한 하늘에서 당신의 눈, 곧 당신의 깨끗하신 눈이 백성과 중

의 피해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귀가 저희 울부짖음을 듣기만 하시나이 까?”(교성 121: 1, 2)

예언자 요셉은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 도움을 간구하며 열렬한 호소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읽는 사람이라면, 차마 그렇게 야만적인 박해를 받았을까 의심할 만큼 끔찍한 핍박을 당했던 성도들을, 폭도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예언자는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드렸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생애의 환란은 영원한 내세에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켜주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성공은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같이 흔히 패배라고 생각하는 일에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아, 평안할 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만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교성 121: 7, 8)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가치있는 삶을 스스로 준

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여행하는 가시밭 길은 안이하고 평탄한 나태의 길보다 훨씬 훌륭할 것입니다.

뚝뚝대는 바람 없이 전진하지 못합니다. 뚝은 동력이 되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뚝대에 매달려 힘없이 있을 뿐입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금광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광산주가 처음 광산을 발견하고 200자까지 굴을 파고 내려 갔으나 바라던 금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실망한 나머지 ‘운이 없다.’고 말하며 그만 더 이상 파 내려 가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얀 깃들’을 보여주는 겁쟁이라고 말했고, 그 광산은 비겁의 상징으로 알려진 폐광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봤던 채굴을 다른 유망한 사람에게 50불을 받고 팔았다. 새로운 광산주가 단 하루 동안 일하여 전 주인이 팠던 지점에서 불과 1자를 파내려 갔을 때 금맥을 발견하고 일확천금의 거부가 되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이 실망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여 “하얀 깃들”을 보이며 비겁하게

물러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변명은 우리를 안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최고의 기쁨과 성공의 정상에서 사는 사람은 “하얀 깃들”을 보이며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된 성공이 쉽고 안이한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시적인 실패도 경험하는 어려운 사명과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전부를 바치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도하는 일이 여러번 실패할 때 실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일들을 제거하면 새로운 전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 스마일(스코틀랜드 작가, 1812—1904)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성공에서 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교훈을 배운다. 그리고 흔히 인간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알므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한번의 실패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의 발견도 없는 사람일 것이다.” ○

주일 학교

9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Simplice Darwin K. Wolford

9월 주일학교 연습 찬송

9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장년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장년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새찬송가 10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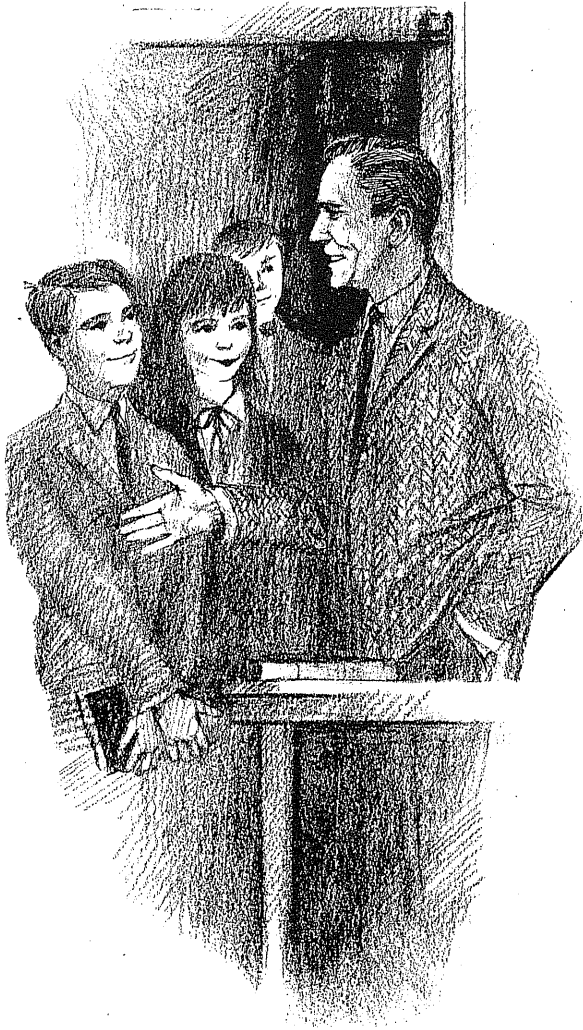
어린이 찬송가 1장

여호수아 24장 15절

마태복음 5장 8절

나를 따르라

로버트 에이. 베어드



● 교사들 사이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진정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 대답은, 실제 행하기는 어렵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번째, 텅빈 가슴에 험기증이 나는 침침한 시선으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찾아 헤매며 방황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사나 좋은 친구는 다음과 같이 그 사람에게 일러 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침례를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 해의 영광으로 가는 13계단을 따라 가십시오. 넷 혹은 여섯 종류의 의식을 받고 나서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조용히 더 들으십시오. 가는 길에 꼭 신전을 거쳐 가십시오. 그리고 위의 것 외에도 그 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고향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관심을 보여 주시오”

위에 있는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누가 10:33-36)와 비교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그에게로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나서, 자기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말하기를 ‘그를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 주겠오.’라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예문에 나오는 문장에서 동사 즉 “행함”에 유의하여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고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불해 주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전부 실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은 상처가 아물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위해 자기가 떠나고 난 후의 일에 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학생, 어린이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그 대답을 주고 받는데 시간을 씩니까? 그들과 함께 대

답을 듣고, 토론하고, 연구하며, 해결합니까?

내적인 만족의 한 예로서 우리들 자신의 생활을 보여 줍니까? 혹은 생활에 대한 진지함, 배움에의 열망,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얻으려는 진정한 정열, 이런 것들을 보여 줍니까?

자신이 의롭게 되고져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까? 혹은 신념에 찬 삶, 관대하고 온유하며 성실한 삶을 얻기 위해 우리가 투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투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연민의 정으로 차서 그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연구하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복음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같이 즐기면서 예수님을 다 같이 따라가자고 그들을 초대합니까?

우리는 다음의 것이 필요합니다. 태만함에 대한 쓸데 없는 이야기를 줄이고…… 좀더 강한 결속, 방향만 이쪽저쪽 가리키는 습관을 줄이고…… 활달하고 원기 있게 행함, 방법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일을 줄이고…… 직접 같이 행함.

내가 하는 대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가고 싶은 강렬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본향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건함에 따라 여행자들의 신앙이 강하게 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만약 그가 다친 사람을 길가에 그대로 버려두고 계속 돌보지 않았다면 강도들은 다시와서 그를 해쳤을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강도들을 막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기에 있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가 다른 재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본향으로 돌아가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서로 접촉하며 공과를 준비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아주 유익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자신이 믿고 있지 않은 사상이나 관념에 대해서 절대로 가르치지거나,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엄격히 약속하여야 합니다.

둘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언한 모든 교훈을

자신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직접 실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단계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로만 하기보다는 학생들과 같이 직접 행동하며 지도해 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첫번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교사는 방황자에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와 같이 생명의 물에 가서 내가 한 것 같이 하여 새로움과 강건함을 얻으십시오. 본향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계단이 있으나 시간은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나의 집에서 쉬시다. 신전에 대하여 물어 보셨나요? 당신의 신앙이 강해지고 정신과 육체가 깨끗해 질 때, 당신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아름답고 온화한 곳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혼자 여행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를 나는 압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는 길에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꼭 간직하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친구들은 당신의 남은 여정에 평화와 휴식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여기 나의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내일을 위해 쉬시다.”

생을 정화하라

주님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아시며 유혹에 빠진 자를 건져 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교성 6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직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 가운데서 어두움을 몰아 낼 수 있도록 이를 말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되어 파송되는 자는 그가 가장 작은 자요, 모든 자의 종이라 할지라도 임명되어 가장 큰 자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만물을 소유한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시는 생명이나 빛이나 영이나 권세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만물이 다 저에게 예속됨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정결하게 되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만물의 소유자가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50:25-28)

이 약속은 실제로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따를 수 있게, 또한 그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개인적으로 그 길을 보여 주시리라는 가능성을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을 분이 있을지 모르나 그분의 약속과 초청은 확실한 것입니다. 보고 따를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사실입니다.

교사로서 우리에게 부가된 책임은 우리들의 생활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자신과 타인들이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을 볼 수 있고, 보여 줄 수 있는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앨리스 씨. 스미스 본부 상호 부조회 임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울 얻으리니, 이는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 11:28-30)

1969년 10월 1일 상호 부조회 연차대회 역원회에서 하신 말씀.

● 지중해의 동방 해안에서 오래전에 보내신 우리 구세주의 이 따뜻한 초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메마른 언덕을 오르실 때, 유대의 먼지 쌓인 길을 걸으실 때, 그는 빈곤과 질병과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회개하는 죄인, 그렇지 않은 모두를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체험과 한 없는 이해심에 의해 “나에게 오라”고 하신 자애로운 교훈이 나왔던 것입니다. 1830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하여 1843년 7월 28일 자매 열여섯은 “빈곤과 고통을 찾아 내고, 궁핍함을 덜어 주기 위해”(국제 여성 상호 부조회……역사의 개요, 아미브라운 라이멘 29페이지) 지명되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 백만명 중에 열 여섯명! 그러나 그들은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1843년의 열 여섯명이 오늘날에는 십만이 넘고, 내일에는 이십만, 다음에는 이백만이 넘게 될 것입니다. 몇주 전, 저는 훌륭한 친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조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를 좋아 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 그의 신상에 대해 하나하나 다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이나 머뭇거리더니 “아 저 방문 교사로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단지 방문교사라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구세주께서 다음 방문교사 모임에서 “나는 그대가 나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대가 지부의 모든 자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해 주기 바라노라. 나는 그대가 나의 조력자가 되어, 이 지역의 모든 자매를 돌보아주고 보호하여, 모두가 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만나기 전에 그러한 모임이 있었다면 그분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그 여자 앞에서 주시는 것과 같이 그분의 신권을 통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방문 교사들은 방문 교육을 성가신

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주께서 주신 영적인 큰 축복이며 특권이라 생각하십니까?

방문 교사에게는 그들을 보살피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커다란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뿐 아니라 교사가 방문하므로 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보살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자매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방문 교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뜻하는 바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란 어떠한 친구를 말합니까? 가장 좋은 친구란 서로 자기의 비밀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또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 친구에게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협조를 아끼지 않는 사이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서있는 문으로 갈 때 저의 가슴은 기쁨에 설레입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방문 교사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반응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방문 교사는 그달의 마지막 날에 급해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더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상호 부조회 모임 때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사람인 것입니다. 방문 교사는 그가 방문한 자매와 그 가정에 축복을 기원하는 사랑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상호 부조회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데 저를

담당하고 있던 방문 교사가 저를 보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 자매는 “알리스 자매 할 일이 많지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군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매달 저를 위해서 일부러 일을 해 주시잖아요. 사랑의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 계시고요. 저는 자매께서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 염려하여 주시는 것으로 많은 위안과 힘을 얻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전혀 만족해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시간 후에 그 자매는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집에서 구운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까 헤어지고 난 다음, 그 전에 자매님이 대학교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빵을 구울 시간도 없다고 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헤드틸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년 전에 우리는 삼년 동안 비어 두었던 집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외 여행으로 피로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한 이십분쯤 지났을까 문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 보았더니 그 전에 그 방문교사(지금은 오랫동안 쉬고 계시지만)가 방금 구워낸 빵과 잼 항아리를 들고 서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막 빵을 구워서 꺼내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보여서 가지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motto를 쓴 상호부조회 팻지를 좋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갓 구워낸 빵, 이것을 언제나 방문 교사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궁핍을 몰아 내기 위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세계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실망, 죄, 슬픔 그리고 고통이 많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친구의 집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정은 삶의 한 방편입니다. 달렌은 젊고 예쁘고 매력적인 한 아기의 어머니인데, 그녀는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병은 급성으로 발전하여 어린 아기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동정심이 많은 방문 교사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환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주라.”(요한 4:6) (교회 정사 4권 567페이지 참조)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권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가 도와 주었습니다.

그 여자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열성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뜸해졌습니다. 남편 조차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달렌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를 거들어 주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며 싫은 소리를 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대로 놀고, 일하고 돌아다니고 할 때 그는 왜 침대에 도와 주는 사람도 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까? 그는 왜 병상에 누워서 점점 더 약해져 가야 합니까? 그는 자기의 운명을 저주했고, 따라서 친구들도 찾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사 두분 중에 한 사람은 이사를 가버렸고 한 사람은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에 넘치는 보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해 동안 자주 그녀를 찾아 가면서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교사는 달렌의 신경질과 투정을 알고 참았습니다. 그는 환자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이 있더라도 아픈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달렌의 가족은 유타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달렌은 아직 40미만이지만 이곳으로 이사온 후에도 침대에만 누워있습니다. 그녀의 오랜 방문 교사의 관심은 이제 끝났느냐고요? 아닙니다. 장거리 전화가 유타에 있는 방문 교사의 집에 걸려오고 있습니다. “제발 달렌의 집에 좀 가주세요. 나는 늘 그녀를 생각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언제건 가능할 때마다 그녀를 찾아가 주십시오.”라고.

동정은 생의 한 방편입니다. 시간과 거리가 방문 교사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빼어 놓지 못합니다. 방문 교사의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이해와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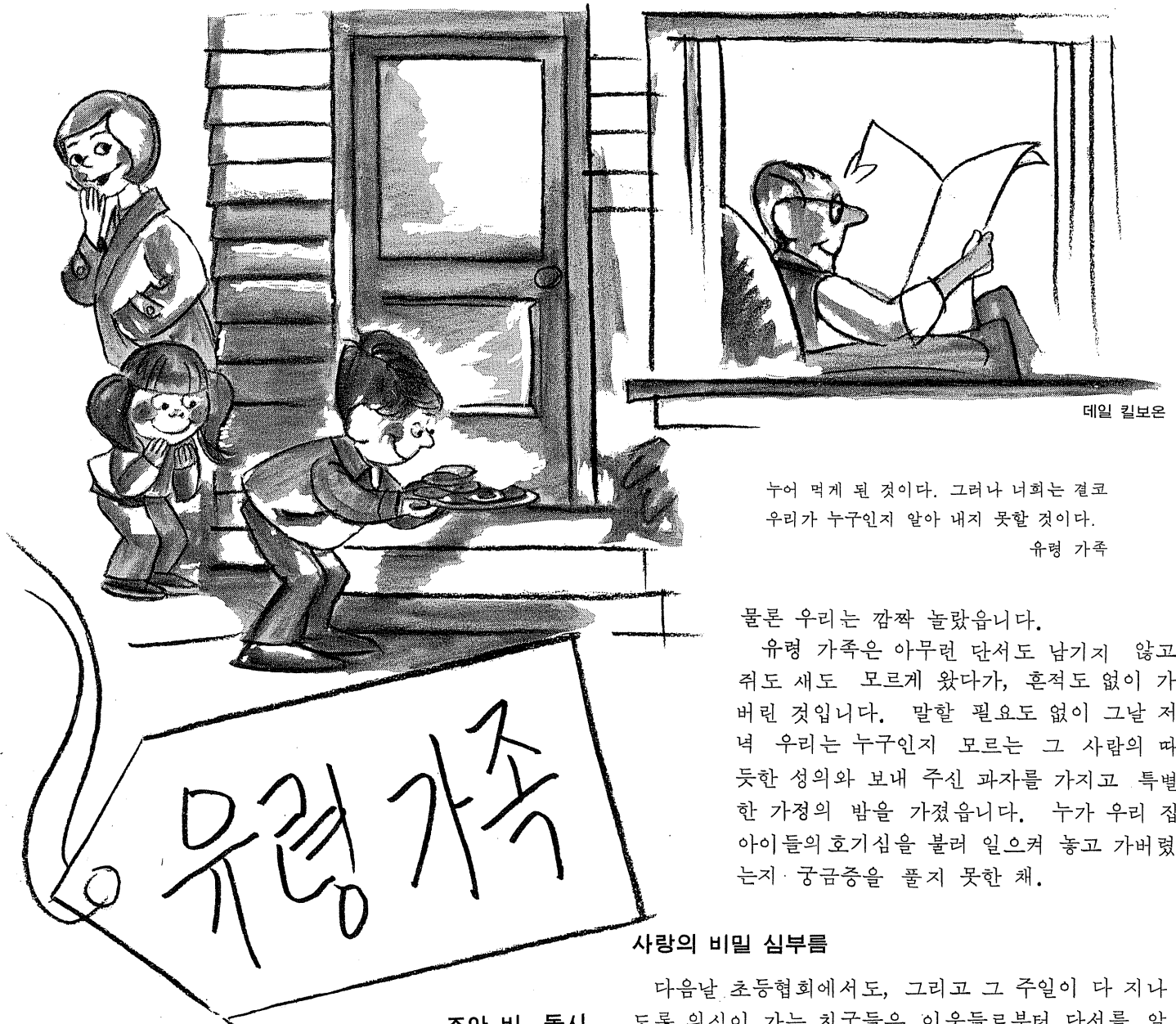
방문 교사는 꼭 필요합니다. 방문 교사가 설사 달렌과 같은 사람을 결코 만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사랑으로 용납해야 할 사람들은 매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는 외로움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고독이 넘치는 얼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곳에 퍼져 있습니다.

매년 교회가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그와 비례해서 방문 교사의 필요성도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대도시에서 비인격화 되어가고, 서로가 등을지는, 고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들과 투쟁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병든자, 상한자, 고아, 과부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두루 보살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매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 조모께서 폭풍우 치는 한 밤중에 마차를 타고 수 마일을 가야 했을 때 필요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공황 때, 우리 어머니가 허기져 있었을 때도 그들은 도움의 손을 뻗어 주었습니다. 저희 방문 교사는 집에서 막 구워낸 말랑말랑한 빵을 사랑과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방문 교사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해소시키는데 최대한의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진 자를 위로하며 슬픔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전 세계에 사랑의 복음이 담긴 메시지를 모든 자매들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관심의 거미줄이 이 지상에 펼쳐질 때 그들은 나라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 11:28-30)

하나님께서서는 방문 교사들을 축복하십니다. 모두가 함께 뭉쳐 일하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 집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하나같이 사랑한다면 이로 인해 모든 남성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데일 킬보른

누어 먹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내지 못할 것이다.

유령 가족

물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 가족은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왔다가, 흔적도 없이 가버린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날 저녁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람의 따뜻한 성의와 보내 주신 과자를 가지고 특별한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누가 우리 집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놓고 가버렸는지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사랑의 비밀 심부름

다음날 초등학교에서도, 그리고 그 주일이 다 지나도록 의심이 가는 친구들은 이웃들로부터 단서를 알아 내려고 했지만, 그 미궁의 사진은 풀리지 않았습니니다. 그 다음 금식주일 모임에서 어느 가족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집 문 앞 계단에 과자를 갖다 놓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으면서도 흐뭇한 일입니까! 곧 지부 회원들은 이와 같은 사랑의 밀사 이야기로 꽃을 피웠으며, 모두들 제 나름대로 범인을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턱 내는 일을 시작한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에 따라오는 말들도 “우리 지부에 당신같은 분이 계시니 기쁘고 또 우리들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일로 수고하시는 분께 감사 드립니다.” 등 다양한 양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구절은 이야기할 때나 공과 시간에 바람직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답으

조안 비. 들시

● 아리조나의 어느 따뜻한 날 저녁 “땡 땡”하는 초인종 소리가 나자, 어린 아이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모두 현관쪽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데이비드가 제일 먼저 달려가 손잡이를 틀어 문을 열었습니다. 신나게도 금방 놀다 들어온 계단 위에 과자가 큰 접시에 가득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은 “와!”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써져 있는 말을 큰소리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밤’에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한턱 내는 것은 너희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가장 친한 사람과 이 과자를 나

로 많이 쓰여졌고, 한턱을 내는 것은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애용되었습니다.

우리 지부는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원의 집엘 가려 해도 자동차가 없이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단서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교회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의 번호나 형태, 색깔 등을 외어 두거나 어떤 때는 써 둡니다. 이 방법이 감쪽같이 없어지는 차의 뒷꽂무니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한턱 내는 편일 때는, 아무도 모르게 과자를 얼른 갖다 놓고 뒤도 안보고 도망쳐 나옵니다. 이때의 희열, 스릴, 그리고 긴박감은 텔레비전에서 탐정극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합니다. 또 서두러서 “극비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려고 가는 지부의 짝 가족을 만나게 될 때의 즐거움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나눌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 서로 나누어 줄 때, 나의 행위에 대한 개념을 희생에 대한 축복이라는 더 위대한 개념으로 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사랑에 넘친 날들, 친구와의 유익했던 사립 등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자녀에게 준 선한 영향력은 무한히 커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실감있고 생생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작은 아이들도 조그마한 일은 일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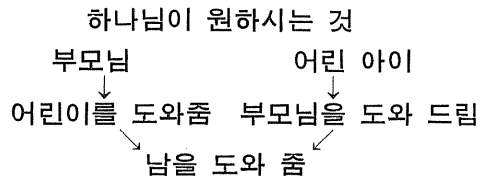
첫번째 “유령 가족”을 만난지 사오년이 지났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굉장한 관심과 흥미를 보입니다. 그런 경험을 가졌으나 이제는 큰아이가 된 소년은, 같은 나이의 아이들과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며, 애쓴 보람이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작은 아이 일지라도 작은 일을 스스로가 할 때 만족을 표시합니다. 강아지 밥을 갖다 주는 일이라든가,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아주 쉬운 잔 심부름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서로가 다 가족의 일원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세살이나 네살된 아이들은 편지나 신문이 왔다든가 할 때 문에 가서 집어 오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랑의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도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가치 있는 개념을 부모님들이 어린이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이 하는 활동에 어린 아이도 참여시켜 부모들을 도와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남을 도와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의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해 주는데 다음의 간단한 도식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나이 2 : 25)

“……너희가 여기 내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 25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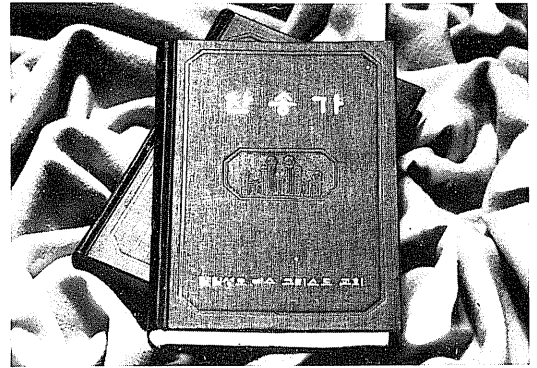
이상의 구절은 어린이가 자기의 생활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체험하고 행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성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준 “유령 가족”의 고안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새 찬송가의 발간에 즈음하여

선교부장 서 현 보



● 이제 우리 한국 성도도 완전한 말일성도 찬송가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이 들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교회 회원을 대표하여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찬송가를 만들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헌신적으로 일해 온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찬송가를 사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불러온 귀에 익은 찬송가는 물론, 새 찬송가를 불러 우리의 삶과 모임을 기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부에서는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이 찬송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번역 출판부에 주문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그의 예언자들은 찬송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복음의 회복에 이어 교회가 조직되고, 그로부터 채 삼개월도 되기 전에 주님은 예언자의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내리셨습니다. “나의 교회에서 사용할 거룩한 찬송가의 선정을 네게 맡기노라. 이는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라.”(교성 25 : 11-12)

이래로 찬송은 교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습니다. 스테이크, 와드, 지방부, 지부에서는 이를 합당하게 지도하고 개선하며 지시할 음악 조직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부, 와드 합창단을, 그리고 때로는 보다 큰 그룹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태버나클 합창단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는 교회와 교리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신권회 합창단 노래하는 어머니 합창단에서는 스테이크나 지방부, 와드나지부 음악 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교회 음악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누구나 노래 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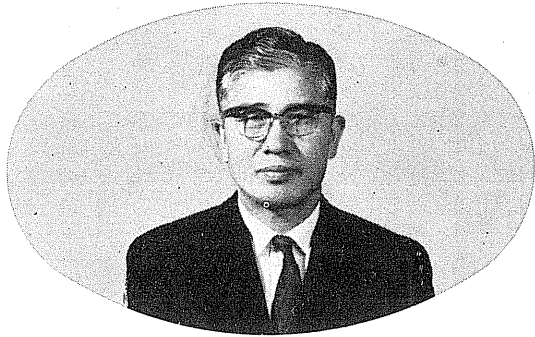
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이 찬송가를 갖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 찬송으로 감동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배푸셨도다.”(시편 98 : 1)

교회에서는 음악 지도자, 지휘자, 반주자를 개발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면 새로운 찬송가를 배울 시간이 있어서 찬송가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기반을 닦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지휘할 사람, 피아노나 울개를 칠 수 있는 사람, 특히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배워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불어 넣어 줄 사람을 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책임자, 합창 지휘자, 반주자는 모임의 주제와 복음의 원리에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적당한 곡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찬송가에 담겨 있는 곡이 많아졌으므로 때에 알맞는 곡을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적절한 찬송은 예배가 가져다 주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줍니다. 주의 깊게 선택하여 부르는 성찬 찬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성스러운 상징물을 들기에 합당한 경배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폐회찬송은 앞으로의 봉사를 다짐하게 해줍니다.

새 찬송가 서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모든 모임에서 본 찬송가를 널리 사용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여기에 실려있는 찬송가로 신앙, 소망, 헌신, 기도 및 회복된 복음의 원리를 배우며, 이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아로 새겨줄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인이 음악을 사랑함에 비추어 본 말일성도 찬송가를 사용하는 가운데 참으로 깊고 의미있는 생각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의무 수행의 정도

— 신앙의 척도

호남 지방부장 이 재 수

● 우리 교회의 모든 회원은 회복된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데서 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회원들은 또한 영원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진리를 통하여 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굳건한 신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간증을 통하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의무를 다 할 때 얻어지는 기쁨과 보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무를 다 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신앙의 발전이야말로 참으로 값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란 무엇일까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고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집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의무란, 우리가 속한 참된 교회를 위하여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집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는 사회적 의무와는 다릅니다. 남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임무라는 연대감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의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님은 우리의 교회 회원 개개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행동으로 연결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선교사의 임무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보다 훌륭하게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참된 진리로 개종 시켜야 할 우리의 의무, 교회에서의 부름과 부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추어야 할 의무, 주님의 집에서 경건히 하며 영적인 모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

무, 어떤 사소한 일일지라도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수행할 수 있는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의무수행의 기회가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하지 못하거나 두려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녹슬어가서 약화될 것이며,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점점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끈고도 좁은 길임을 알게 될 때, 자신의 신앙은 더욱 강하고 깊어질 것이며 우리 교회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회원 각자의 신앙의 정도, 즉 얼마나 강하고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교회내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성실의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오직 헌신과 봉사 정신만이 요구되는 교회의 부름을 다 한다는 것은, 강하고 깊은 신앙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 정도에 따라 그 맡은 바의 수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역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물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은, 교회내의 의무를 수행할 때 얻어지는 보람 가운데서 더욱 신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 임무를 깨닫게 하라.”는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의 글은 호남 지방부 평의원이 전하는 1970년 6월분 지방부장 말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너와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리차드 엘. 이반스

● 생각이 깊은 한 아들이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더라도 너와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이 말은 현대적인 의미는 없을런지 모르나 몇 가지 의문에 해답을 준다. 비록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가족과 친구마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아는 것이다.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거나, 계명은 알지 못하고 살면서, 다시 말해서 정직, 미덕, 도덕에서 이탈한 생활을 하며, 정통적인 표준과 제지를 무시하며,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며 또는 자신은 기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생활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우기 내적인 갈등은 왜 일어나며, 타인과는 왜 다투며, 자학과 불안과 불만과 기만 당하는 느낌은 왜 떠나지 않을까? 앨버트 허바드*가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로 벌을 받는 것이지 죄를 위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한 말은 한 가지 해답을 밝혀 주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법률은 인간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다. 인간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느냐는 그의 참된 본성에 의해 판가름이 된다. 만일 그가 이런 방법으로 생활하면 이런 결과에, 저런 방법으로 생활하면 저런 결과에 이른다. 이 같이 인간은 교육과 훈련으로 인해 다양한 가르침을 받으며 여러 가지 상태를 갖게 됨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빛의 반사작용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도 작용하는 기본 원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생을 사느냐에 따라 세련되거나 저속해지며, 평안하거나 불안하며, 행복하거나 불행하며, 자존심을 갖거나 자학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마음의 평화와 자존심을 발견하는 길은 오직 한 길 뿐이며, 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고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를 음미하자. “네가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더라도 너와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참으로 자신만이 안다면 인간의 행위는 결코 좋은 모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앨버트 허바드, 실리주의자 제9권 77페이지